

치과위생사의 계속교육을 통한 직무에 대한 만족도

유경화 · 이선경¹ · 성정민²

한림대학교 임상치의학대학원 치과병원 ·

¹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사회치과학교실 및 구강생물 연구소 · ²서남대학교 치위생학과

Through continuing education of dental hygienists for the job satisfaction

Kyung-Hwa Yoo · Sun-Kyoung Lee¹ · Jeong-Min Seong²

Hallym University Dental Hospital, Seoul 130-010, Korea

¹Dept. of Preventive and Social Dentistry & Institute of Oral Biology, College of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 Seoul 130-701, Korea

²Dept. of Dental Hygiene, Seonam University, Asan 336-922, Korea

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plorer the extent to which the dental hygienist demand for higher education.

Methods : This study was done using the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12.0 (SPSS 12.0) for windows. The results was as followed.

Results : Participation continuing education 42.3%, do not attend the continuing education 57.7%.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according to education after graduation, in recognition of the existence, winning less than five years if is the most was higher with 42.9%, to 50.5% in the current academic year graduated colleges is the most highly($p<0.05$). Through continuing education, improve self-regard and identity' $3.12\pm.49$ was the highest.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with continuing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highest satisfaction of the relevant item future work areas hope' has been investigated($p<0.05$).

Conclusions : Dental hygienists as one of professionals taking responsibility and duties on oral health need to make effort to satisfy. While they show infinite ability, possible as they can and overcome given environment and situation.(J Korean Soc Dent Hyg 2012;12(4):771-780)

Key words : continuing education, dental hygienists, job satisfaction

색인 : 계속교육, 직업만족도, 치과위생사

1. 서론

오늘날 사회 경제 및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사람들의 삶의 질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¹⁾. 국민소득의 향상, 의료산업의 발달, 인구구조의 변화, 건강수준과 질병양상의 변화, 의료정보의 홍수, 의료에 관한 권리의식 팽배, 의료기관간 경쟁의 가중과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의료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각 의료기관들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신념, 공유가치를 갖고 차별화된 서비스로 경쟁우위 확보, 살아 있는 병원 등을 전략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듯 병원에서는 직원들이 각자가 담당한 업무에 관련된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다른 병원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개인 차원에서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식과 기술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는 학습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의료 환경의 흐름은 모든 건강관리 분야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고 국민들의 변화된 요구와 필요성은 구강건강분야에도 영향을 주어 구강병의 예방과 교육, 구강관리 방법 등에 대한 업무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치과위생사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 증가, 주 5일제 등 근무여건의 변화, 치과코디네이터 등과 같은 치과병원내의 다양한 직종의 등장으로 자신의 업무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²⁾. 또한 최근 대형화·네트워크화 되어가는 치과조직에서 치과위생사의 양적 증대가 이루어지면서 그들이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이 폭넓게 전환되고 있으며³⁾, 치과위생사의 교육수준에 따라 직무만족 및 직무성과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치과위생사의 계속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며⁴⁾, 사회적 지위 향상, 치과위생사로서의 전문성 강화 및 개인적 욕구충족을 위한 계속교육의 필요성 증가와 교육열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치과위생사의 직업적 교육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이나 치과위생사의 학업진행을 좋게 보지 않는 직장내 분위기 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여 효과적인 계속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치과위생사의 교육수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만 진행되었을 뿐 치과위생사들의 계

속교육에 대한 인식과 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계속교육 만족도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는 조사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 목적은 치과위생사의 계속교육 참여여부와 계속교육을 통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이후 직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 결과가 치과위생사의 계속교육에 관한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및 방법

2011년 4월부터 서울 및 경인지역, 충남지역에 위치한 치과의원, 치과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며 치과위생사 면허를 소지한 200명을 대상으로 편의추출하여 조사하였다. 우편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으나 수거율이 저조하여 전화 접촉, FAX 및 이메일 발송, 직접 방문조사를 병행하여 2011년 5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중 연구 자료로써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기입누락, 이중기입, 기입 불명확 등이 있는 18부를 제외한 총 182부가 회수되어 91%의 응답률을 보였다.

2.2. 연구도구

치과위생사의 계속교육을 치위생(학)과 교육이 끝난 후 전문성 강화와 자기계발을 위해 국가 지정교육기관을 통한 학사 및 석사, 박사학위로의 진학으로 정의한 우⁵⁾와 최⁶⁾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였다. 연구내용으로는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계속교육 참여현황, 계속교육 참여 동기 및 불참 이유, 계속교육을 통한 만족도이다. 선행연구에 따라^{5,6)} 만족도에 관한 설문문항은 교육수준에 따른 만족감 3문항, 직장내에서의 자존감, 자율성, 승진 및 업무영역의 확대 기대 4문항, 이직 및 전직 1문항으로 Likert's 4 scale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 사이의 신뢰도를 검정한 결과 각 범주의 Cronbach's $\alpha = .84$ 로 나타났다.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Classification	Frequency	%
Age	Under 25 years	47	25.8
	26-30 years	91	50.0
	31-35 years	37	20.4
	Over 36 years	7	3.8
Career	Under 5 years	78	42.9
	6-10 years	74	40.7
	11-15 years	26	14.3
	Over 16 years	4	2.1
Marriage status	Married	45	24.7
	Unmarried	137	75.3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Three-year college graduation	92	50.5
	Credit Bank System or major deepening	44	24.2
	Korean national open University	18	9.9
	University graduation	12	6.6
	Graduate school	16	8.8
Place of business	Dental clinic	83	45.6
	Dental hospital	22	12.1
	General or university hospital	74	40.7
	Education place	1	0.5
	Etc	2	1.1
Future work areas hope	As it stands	68	37.4
	Public health office	28	15.4
	Dental associated company	6	3.3
	Teacher	39	21.4
	Find a new job	29	15.9
	Etc	12	6.6
Total		182	100.0

2.3. 분석방법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치과위생사의 계속교육 참여 현황과 계속교육 참여 및 불참 이유는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했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졸업 후 계속교육 참여여부 실태 차이는 Fisher's Exact Test로 시행하였다. 계속교육을 통한 기대감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고, 계속교육을 통한 만족도에 대한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별 계속교육 만족도의 평균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정규성검정 실시결과, 정규분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비모수 통계를 사용한 Mann-Whitney U-test 혹은 Kruskal-Wallis test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자료처리는 SPSS for windows version 12.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3. 연구성적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는 총 182명으로 연령별로는 '26~30세'가 50.0%로 가장 많았으며, '25세 이하' 25.8%, '31~35세' 20.4%, '36세 이상' 3.8% 순이었으며, 근무경력으로는 '5년 이하'가 42.9%로 가장 많았으며, '6~10년' 40.7%, '11~15년' 14.3%, '16년 이상' 2.1% 순이었다. 결혼여부는 '미혼' 75.3%, '기혼' 24.7%였으며, 연구대상자의 현 학력으로는 '3년제 졸업'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근무처로는 '치과의원' 45.6%로 가장 많았고, '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 40.7%, '치과병원' 12.1%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희망근무 분야로는 '현재업무를 그대로 하는 것을 원한다'

Table 2. After graduation of dental hygiene continuing education confirm attendance

Variables	Frequency	%
Attend the continuing education	77	42.3
Do not attend the continuing education	105	57.7
Total	182	100.0

*Continuing education of dental hygienists : Entrance into a school of higher to degrees

Table 3. Reason of continuing education participate and absence

Variables	Classification	Frequency	%
Participate reason	Degree	41	52.6
	Increase my field of work capacity	6	9.0
	Help me career and promotion	8	10.3
	Help me to find a new job	7	9.0
	Improve identity	14	17.8
	Interpersonal relationships	1	1.3
	Total	77	100.0
Absence reason	School education is sufficient	14	13.1
	Time, distance to the requirements of the Environmental	54	52.4
	Lack of information	17	15.9
	For economic reasons	10	9.3
	Etc	10	9.3
	Total	105	100.0
Continuing education necessity	Required	69	65.7
	Unnecessary	36	34.3
Total		105	100.0

37.4%, ‘교육자’ 21.4%, ‘다른 분야로 전직’ 15.9% 순으로 조사되었다.

3.2. 치과위생사의 계속교육 참여현황

치과위생사의 계속교육 참여현황은 <Table 2>와 같다. ‘계속교육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이라고 응답한 자는 42.3%, ‘계속교육에 참여하지 않음’은 57.7%의 응답률을 보였다.

3.3. 연구대상자의 계속교육 참여 및 불참 이유

연구대상자의 계속교육 참여 및 불참 이유는 <Table 3>과 같다. 계속교육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이라고 답한 77명의 응답자 중 52.6%는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직장내의 자존감 향상’ 17.8%, ‘이력 및 승진에 도움’ 10.3%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계속교육에 ‘계속교육에 참여하지 않음’이라고 답한 응답자

105명 가운데 52.4%는 ‘시간, 거리 등 환경적인 여건 때문에’라고 응답했으며, ‘계속교육에 관한 정보 부족’ 15.9%, ‘학교교육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13.1%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속교육 불참 대상자들에게 계속교육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필요하다’ 65.7%, ‘필요없다’ 34.3%로 나타났다.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졸업 후 계속교육 참여여부 실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졸업 후 계속교육 참여여부 실태는 <Table 4>와 같다. 경력의 경우 ‘5년 이하’가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졸업 후 계속교육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은 27.3%, ‘졸업 후 계속교육 불참’ 54.3%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현 학력에서는 50.5%로 ‘3년제 졸업’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졸업 후 계속교육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은 5.2%,

Table 4. Relationship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fter graduation of continuing education confirm attendance

Classification		After graduation of continuing education confirm attendance		N(%)	p-value
		Attend	Do not attend		
Age	Under 25 years	12(15.6)	35(33.3)	47(25.8)	.056
	26-30 years	43(55.8)	48(45.7)	91(50.0)	
	31-35 years	19(24.7)	18(17.2)	37(20.4)	
	Over 36 years	3(3.9)	4(3.8)	7(3.8)	
Carer	Under 5 years	21(27.3)	57(54.3)	78(42.9)	.002*
	6-10 years	41(53.2)	33(31.4)	74(40.7)	
	11-15 years	12(15.6)	14(13.3)	26(14.3)	
	Over 16 years	3(3.9)	1(1.0)	4(2.1)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Three-year college graduation	4(5.2)	88(83.8)	92(50.5)	.001*
	Credit Bank System or major deepening	38(49.4)	6(5.7)	44(24.2)	
	Korean national open University	16(20.8)	2(1.9)	18(9.9)	
	University graduation	3(3.8)	9(8.6)	12(6.6)	
	Graduate school	16(20.8)	0(0.0)	16(8.8)	
Total		77(100.0)	105(100.0)	182(100.0)	

*p-value by Fisher's Exact Test

‘졸업 후 계속교육 불참’ 83.8%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 < .05$).

직 및 전직에 도움’ $3.09 \pm .60$,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 선택에 유리’ $2.92 \pm .70$ 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3.5. 계속교육을 통한 기대수준

계속교육을 통한 기대수준은 <Table 5>와 같다. ‘직장 내에서 자존감과 자의식 향상’ $3.12 \pm .49$ 로 가장 높이 나타났으며, ‘이력, 경력 및 승진에 도움’ $3.11 \pm .63$, ‘이

3.6. 계속교육을 통한 만족도에 대한 변인 간의 상관관계

계속교육을 통한 기대감에 미치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 본 결과는 <Table 6>과 같으며, 계속교육을 통

Table 5. Expectation level process of continuing education after graduation

Classification	M $\pm$ SD*
Higher educational status will give advantage to finding spouse	2.92 $\pm$.70
Higher educational status will give financial rich	2.90 $\pm$.76
Higher educational status will be able to adapt to new surroundings and show high performance in learning new techniques	2.90 $\pm$.70
By acquiring this diploma will be self-regard and identity	3.12 $\pm$.49
By acquiring this diploma will help me career and promotion	3.11 $\pm$.63
By acquiring this diploma will help me to find a new job	3.09 $\pm$.60
By acquiring this diploma will allow me to increase my field of work capacity	2.91 $\pm$.74
Higher educational status will create more autonomy and authority in the work place	2.73 $\pm$.74
Total	2.96 $\pm$.67

*Likert scale : max=4, min=1

Table 6. Correlation awareness about satisfaction with continuing education

	A	B	C	D	E	F	G	H
A	1							
B	.744**	1						
C	.365**	.347**	1					
D	.401**	.359**	.582**	1				
E	.404**	.449**	.453**	.461**	1			
F	.586**	.486**	.443**	.381**	.575**	1		
G	.439**	.510**	.383**	.344**	.513**	.601**	1	
H	.506**	.494**	.507**	.462**	.573**	.595**	.758**	1

by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p<0.01

A : Higher educational status will give advantage to finding spouse

B : Higher educational status will give financial rich

C : Higher educational status will be able to adapt to new surroundings and show high performance in learning new techniques

D : By acquiring this diploma will be self-regard and identity

E : By acquiring this diploma will help me career and promotion

F : By acquiring this diploma will help me to find a new job

G : By acquiring this diploma will allow me to increase my field of work capacity

H : Higher educational status will create more autonomy and authority in the work place

Table 7. Satisfaction continuing educ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Higher educational status will give advantage to finding spouse		By acquiring this diploma will be self-regard and identity	
			Mean±SD*	p-value**	Mean±SD*	p-value**
Age	Under 25 years	36	3.03±.77	.341	3.11±.57	.833
	26-30 years	75	2.93±.64		3.12±.49	
	31-35 years	28	2.82±.81		3.18±.47	
	Over 36 years	7	2.57±.53		3.00±.00	
Marriage status	Married	36	2.72±.81	.064	3.14±.42	.882
	Unmarried	110	2.98±.66		3.12±.52	
Future work areas hope	As it stands	43	2.88±.62	.766	3.02±.40	.049
	Public health office	26	2.92±.79		3.12±.58	
	Dental associated company	4	2.75±.95		2.75±.50	
	Teacher	38	3.00±.80		3.32±.52	
	Find a new job	24	2.79±.72		3.08±.50	
Etc		11	3.09±.30		3.09±.30	
Total		146				

Likert scale : max=4, min=1

**p-value Mann-Whitney U-test or Kruskal-Wallis test

한 만족도에 대한 변수 간의 상관관계에서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업무영역의 확대 기대’와 ‘직장내에서 자율성 및 권한의 확대 기대’와의 상관관계에서 상관관계 계수는 .758로 가장 강한 양(+)의 상관관계이고, 그 다음으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 선

택에 유리’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풍요’가 .744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은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Table 8. Satisfaction continuing educ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Help me career and promotion		Allow me to increase my field of work capacity	
			Mean±SD*	p-value**	Mean±SD*	p-value**
Age	Under 25 years	36	3.19±.62	.021	3.19±.62	.481
	26-30 years	75	3.11±.53		3.03±.56	
	31-35 years	28	3.14±.80		3.14±.70	
	Over 36 years	7	2.57±.78		3.00±.00	
Marriage status	Married	36	3.14±.63	.694	3.03±.65	.605
	Unmarried	110	3.10±.63		3.11±.58	
	As it stands	43	2.95±.61		2.88±.58	
Future work areas hope	Public health office	26	3.15±.73	.154	3.15±.73	.049
	Dental associated company	4	3.25±.50		3.25±.50	
	Teacher	38	3.29±.61		3.29±.56	
	Find a new job	24	3.04±.62		3.04±.55	
Etc		11	3.09±.53		3.09±.30	
Total		146				

*Likert scale : max=4, min=1

**p-value Mann-Whitney U-test or Kruskal-Wallis test

3.7.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계속교육 만족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계속교육 만족도의 차이는 <Table 7>과 <Table 8>과 같다. 향후 희망근무 분야로 ‘교육자’라고 대답한 응답자에서 ‘직장내에서 자존감과 자의식 향상’이 3.32±.52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연령에서는 ‘25세 이하’ 응답자에서 ‘이력, 경력 및 승진에 도움’이 3.19±.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4. 총괄 및 고안

현대 의료 환경의 변화는 국민경제 수준과 국민의식 향상, 인구구조와 질병구조의 변화 등과 함께 치과 의료의 전문화 및 세분화를 가속시키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치의학의 발전은 치과의료 전달체계의 변화로 그간의 치과의료 분담 인력으로 자리 매김을 했던 치과위생사의 업무영역에서 역할과 사회적 수용이 더욱 확대되고 전문화되어야 할 시점에 도래하고 있다⁷⁾.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부응하여 치위생학과 졸업 후 치위생학 지식을 임상에 적용하고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계속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치과위생사의 수는 치위생학과 신

설 및 증원에 비례하여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⁸⁾. 하지만 간호조무사와 업무중첩과 직무갈등이 발생되어, 치과위생사로서 낮은 자기존중감이나 잦은 이직과 같은 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며⁹⁾, 치과위생사로서의 직업적 기대와 임상 실무현장 간의 차이에 따른 실망과 회의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로서 효율적 업무수행과 함께 전문적 지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직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된다¹⁰⁾.

이에 향후 전문성이 강화된 치과위생사의 역할 규명과 치과위생사의 계속교육에 관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는 시급한 과제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계속교육 참여여부와 계속교육을 통한 만족도에 대한 결과를 알아보고자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치과위생사의 계속교육 참여여부에서 ‘참여했거나 참여 중’ 42.3%, ‘불참’ 57.7%로 조사되었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최⁶⁾의 연구에서는 ‘참여 경험이 있다’ 78.9%, ‘참여 경험 없다’ 21.1%로 본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최⁶⁾의 연구에서는 15년 이상의 경력자가 전체 응답자의 45.2%를 차지한 반면 본 연구의 응답자에서는 2.1%에 불과해 근무 경력이 높을수록 숙련된 직장생활로 인해 계속교육 참여가 수월하리라고 사료되며, 향후 적극적인 홍보나 교육프

로그그램을 통해 참여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계속교육 참여 동기를 묻는 문항에 52.3%가 ‘학위취득’이라고 응답했다. 최⁶⁾의 연구에서도 높은 비율인 33.5%가 ‘학위취득’이라고 응답했으며, 하¹¹⁾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편입, 대학원 진학 등을 포함한 학문적 자기개발’이 $4.38 \pm .816$ 으로 본 연구결과와는 다른 분석법을 사용하였지만 자기개발이라는 응답이 높게 조사되어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자기개발의 중요성은 업무의 능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역할에 있어 중요한 필요 역량이므로 연구대상자들의 자기개발에 대한 열의와 관심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계속교육 담당기관에서는 전문성과 질적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계속교육 불참 이유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52.4%가 ‘시간, 거리 등 환경적인 여건 때문에’라고 응답했으며, 우⁵⁾의 연구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인 33.0%가 ‘시간, 거리 등 근무여건’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한다고 조사됐다. 이는 계속교육 참여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인 교육시간이 불만인 것은 퇴근시간을 상사의 퇴근시간에 맞춰야 한다는 업무의 특성에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온라인 교육을 발전시키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더불어 계속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이해관계자들은 계속교육 참여 동기를 이해하고, 개인의 특성들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평가와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졸업 후 계속교육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응답자 중 ‘6-10년 이하’의 경력자가 과반수 이상인 53.2%, 현 학력으로는 ‘학점은행제 또는 전공심화과정 졸업’이 49.4%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며, 졸업 후 계속교육에 ‘불참’인 응답자 가운데 ‘5년 이하’의 경력자와 현 학력으로는 ‘3년제 졸업’이 각각 54.3%, 83.8%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5$). 홍과 김¹²⁾은 계속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직업에 대한 만족감을 증가시켜 주며, 해당 전문영역에서의 학습에 대한 열의와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업무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주어 그들이 일하고 있는 사회에서 지도자로서의 적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 하였다. 또한 김¹³⁾은 직업만족도와 계속교육간에는 순 상관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자신의 직무에 임하는 긍정적 자세와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상위 계층의 욕구인 자아 존중감 및 자아개발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므로 계속교육에 대한 사고와 반응이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따라서 계속교육을 통한 자기개발은 직업에 대한 긍지 또는 직무만족도까지 기여되는 분명한 요인이므로, 치과위생사들이 계속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직장 내에서 탄력적 출·퇴근시간 적용 등의 근무여건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계속교육을 통한 기대감 중 ‘직장내에서 자존감과 자의식 향상’ $3.12 \pm .49$, ‘이력, 경력 및 승진에 도움’ $3.11 \pm .63$ 의 순으로 조사됐으며, 리커트 5점 척도를 기준으로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우⁵⁾의 연구에서도 ‘학위취득시 자존감 및 자의식이 높아질 것이다’ $3.81 \pm .80$, ‘학위취득 시 이직 및 전직 시 도움이 될 것이다’ $3.74 \pm .86$ 으로 조사되어 두 연구의 모든 문항에서 평균을 넘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종합병원 간호사를 연구대상으로 리커트 5점 척도로 조사한 성¹⁴⁾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간호사의 전문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 $4.70 \pm .52$, ‘승진의 기회를 많이 제공할 것이다’ $3.64 \pm .92$ 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치과위생사들은 계속교육을 통해 전문성 확립 및 자존감 향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승진과 같은 내적인 보상의 가치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여섯째, 계속교육을 통한 만족도에 대한 변인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업무영역의 확대 기대’와 ‘직장 내에서 자율성 및 권한의 확대 기대’는 .758의 상관계수로 가장 관련성 있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성¹⁴⁾의 연구결과에서도, 간호사의 계속교육에 대한 수용도와 직무만족도와의 상관관계는 .420의 상관계수로 순 상관관계로 조사됐다. 이는 Marty¹⁵⁾가 ‘직무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 계속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이며 직무만족과 계속교육과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직무만족 향상을 위해서라도 직장내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직원들의 계속교육을 지

원해 줄 수 있는 복지제도 마련이 각 치과 의료기관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일반적 특성별 계속교육 만족도에서 연관성이 가장 높은 항목은 ‘향후 희망근무분야’였으며, 그중 ‘교육자’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직장 내에서 자존감과 자의식 향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또한 연령에서 ‘25세 이하’의 응답자는 ‘이력, 경력 및 승진에 도움’에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계속교육의 교육효과와 만족도로 업무능력이 향상되고 학습을 통한 심리적 성취감을 느꼈다는 인식은 고무할 만한 일이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들의 계속교육 여건을 보완하여 학습지원을 한다면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며¹⁶⁾, 나아가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임으로 직무만족을 느끼게 한다¹⁷⁾.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계속교육이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조사대상자가 일부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편의표본 추출법에 의해 선정된 관계로 치과위생사 전체를 대표하는 표본이 아니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앞으로 대표성 있는 표본 추출을 통해 체계적인 연구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치과위생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계속교육에 대해 모색하는데 본 연구가 기초자료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향후 치과위생사의 교육수요가 치과조직에 미치는 영향, 개인적 또는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및 향후 가져올 결과에 대한 거시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2011년 4월 27일부터 2011년 5월 18일까지 182명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의 계속교육을 통한 만족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연구대상자의 계속교육 참여 동기로 계속교육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 52.6%는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계속교육에 ‘불

참’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 52.4%는 ‘시간, 거리 등 환경적인 여건 때문에’라고 응답했다.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졸업 후 계속교육 참여여부 실태에서, ‘5년 이하’가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졸업 후 계속교육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은 27.3%, ‘졸업 후 계속교육 불참’ 54.3%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현 학력에서는 50.5%로 ‘3년제 졸’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졸업 후 계속교육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은 5.2%, ‘졸업 후 계속교육 불참’ 83.8%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 < 0.05$).
3. 계속교육을 통한 기대감의 조사결과, ‘직장 내에서 자존감과 자의식 향상’ $3.12 \pm .49$ 로 가장 높이 나타났으며, 계속교육을 통한 만족도에 대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두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계속교육 만족도에서 연관성이 가장 높은 항목은 ‘향후 희망근무 분야’로 ‘교육자’라고 대답한 응답자에서 ‘직장 내에서 자존감과 자의식 향상’이 $3.32 \pm .52$ 로 가장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계속교육을 통한 자기개발은 직장 내에서 자존감 및 자의식 등이 향상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계속교육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치과위생사들의 근무여건상 계속교육의 기회가 여유롭지 못하므로, 다양한 교육 형태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인터넷을 통한 교육이나 주말을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계속교육에 대한 참여 동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Song BN, Song KS, Jang SH. Health promotion lifestyle to the selection factors of dental institutions among some office workers. J Korean

- Soc Dent Hygiene 2012;12(1):179-187.
2. Hwang KS. A study on lifelong education needs of industry works in the city area[Master's thesis]. Seoul: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2005.
3. Park YN, Park KJ, Oh SH, Kim SH. Dental office manager current conditions by scale of korean dental clinic. J Korea Contents Assoc 2010;10(10):267-273.
4. Oh JS.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job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ists in Korea [Doctor's thesis]. Kwangju:Th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2001.
5. Woo EY. Determinants of the demand for higher education in dental hygienist[Master's thesis]. Seoul:The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2009.
6. Choi MJ. Hospital nurses' perceptions and participation status of continuing education [Master's thesis]. Changwon:The graduate school of Kyoung Nam University;2008.
7. Park SS, Choo PK. A study on the awareness of dental patients about dental hygienists. J Dent Hyg Sci 2010;10(3):191-197.
8. Yang SK. Relationship of Dental Hygienist Professionalism to Curriculum Components in Each Curriculum-Related Group[Master's thesis]. Cheonan:The graduate school of Dan Kook University;2009.
9. Park IS. A study of curriculum for improving vocational competence of dental hygienists [Doctor's thesis]. Cheonan:The graduate school of Dan Kook University;2004.
10. Kang BW. A study of the causal factors of clinical dental hygienists' job satisfaction. Dong Nam Journal Issue 2003;21(1):115-121.
11. Ha SH. Analysis on education needs for activation of continuing education of professional secretaries[Master's thesis]. Seoul: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 University;2001.
12. Hong YS, Kim YI. Special Topics in Nursing. 1st ed. Seoul: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press;1996:21-40.
13. Kim SO. Also positive about the continuing education of nurses relationship.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Journal Issue 1996;20(2): 19-55.
14. Sung YJ. Study on the degree of reception and duty satisfaction about the continuous education of the nurse in general hospital [Master's thesis]. Seoul:The graduate school of Kyung Hee University;1999.
15. Marty J 3rd. A survey of attitudes toward two motivating factors. Am J Med Technol 1977; 43(7):672-677.
16. Shin SH. A study on empowerment of the clinical dental hygienists. J Dent Hyg Sci 2010;10(3):185-190.
17. Kim HY, Choi Jo, Seong MK. The effect of s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ists'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J Korean Soc Dent Hyg 2012;12(1):213-223.